



실 리프팅

미지에피부과 조대영

얼굴윤곽·팔자주름... 피부 나이 잡아라

만추의 끝자락인 요즘, 단풍도 절정의 끝을 향해 달린다. 남도에서 조금 이른 산과 계곡엔 단풍을 보려는 이들로 가득하다. 붉고 노랗게 제대로 물든 단풍을 보면 어찌 이리도 강렬한 색상을 뽐내는지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현대 그 화려함 뒤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

단풍이 무언가? 봄여름 내내 얼룩소가 가득한 녹색의 나뭇잎들이 뿌리로부터 영양공급이 줄어 보조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활성화되면서 변하는 과정이 아니던가. 달리 말해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을 즐기는 것이 단풍구경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

아무튼 단풍잎의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허망함이 있듯이, 피부 노화과정에도 이와 유사하게 감춰진 비밀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피부탄력과 콜라겐

사람의 일생에서 피부가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 빛나는 피부색, 탱탱한 탄력을 보여주는 20대를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피부가 처져 볼 살, 턱 밑 살이 생기고 심하면 심술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는 피부 속 콜라겐이 매년 1%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건 콜라겐이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20대 초반부터라는 것이다. 화려한 단풍 뒤에 겨울이 뒤따르듯이 피부도 아름다움의 최고점에서 노화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니 참 아이러니하다.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피부 노화에 대한 준비는 빠른수록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언컨대 늙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특히 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거부감은 가히 절대적이다.

화장품 회사가 여자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쓰면서 엄청난 광고비용을 들인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 누구보다 주름이나 탄력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름하면 예전에는 중장년 이상의 여성들에만 해당



미지에피부과 조대영원장이 얼굴에 팔자주름이 생긴 20대 여성에게 실 리프팅을 하기 위해 시술전 디자인을 하고 있다.

사용되는 실의 종류·개수에 따라 결과 달라져

시술경험·노하우 지닌 전문의와 상담 후 선택

되는 이야기였는데 최근엔 20, 30대도 모두 주름을 없애거나 줄이기 즉 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하다. 단, 그 노력이 적절하고 유효해야 할 텐데 말이다.

◇젊음 유지를 위한 노력

항 노화를 위한 노력 중에 기본은 자외선 차단이다. 하지만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불가능하기에, 차단책으로 노화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시술로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안면거상술을 들 수 있다. 다만 전신마취, 두피 쪽이나 귀 뒤에 생기는 흉터, 풀지 않은 회복기간 등의 불편함으로 선택 시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반면, 수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한 시술들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대중화되었는데 이를 '쁘띠'성형이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비수술적 방법 즉 여러 가지 주사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이미지를 바꾸는 시술이다. 대표주자로 바로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하는 '쁘띠'시술을 꼽을 수 있다.

◇보톡스·필러 보완하는 '실 리프팅'

그런데 보톡스나 필러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잘 생기는 눈가주름 등은 보톡스에 잘 반응한다. 하지만 심한 팔자주름처럼 반복적인 근육운동으로 접힌 부위에 골짜기처럼 주름이 생기고 그 위쪽으로 중력에 의한 피부 처짐과 볼 살이 자리 잡게 되면 보톡스나 필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경우 효과적인 뿌띠시술이 '실 리프팅'이다.

최근에는 흡수성 봉합사인 PDO(polydioxane) 실을 이용하는데,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당겨주면 주름을 풀이면서 시술 직후부터 피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의 발전이 놀랍다. 다양한 형태, 길이, 돌기의 모양 등 개개의 특성을 가진 실로 진화하고 있다. 심하고 다양한 피부노화일

수록 다양한 실의 조합이 필요하기에 반가운 일이다.

실 리프팅은 1시간이내의 짧은 시술시간과 시술 직후 세안이나 메이크업이 가능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항 노화의 효과로는 주름개선은 기본이고, 피부 탄력 회복과 피부 미백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피부의 처진 방향을 역계산해 실의 종류, 개수, 힘의 벡터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통증이나 멍이 적어야만 원래 뿌띠시술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하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 100세를 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오래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단풍잎이 지면 겨울이 이어 봄이 오지만, 피부에 봄이 다시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능한 피부의 봄, 여름을 길게 끌고 가도록 노력하자. 하지만 가을, 겨울이 빨리 찾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말자. 피부에 봄이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기에 말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의대 민정준·최현일교수 논문 세계적 과학저널 커버스토리에 게재

암세포만 공격 '살모넬라 균주' 소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민정준(핵의학교실)교수와 최현일(미생물학교실)교수의 연구논문이 최근 미국의 유명 과학저널 '몰레큘러 테라피(Molecular Therapy·분자표적치료)'지 11월호의 커버스토리로 게재됐다.

이 연구에서는 암 조직에서만 치료물질을 만들도록 고안된 살모넬라균주를 소개했다.

이 살모넬라 균주는 독성을 상당부분 제거했고, 미량의 독시사

이클린(doxycycline)에 의해 치료 약물의 생산이 조절된다.

또한 살모넬라가 치료 약물을 만들 때에는 광학조영물질도 함께 만들어지도록 디자인돼 약물생산 정도를 광학영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즉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동시-진단시스템을 뜻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커버스토리로 채택한 '몰레큘러 테라피'지는 영국의 유



민정준 최현일

명 과학저널인 네이처의 자매지이자 미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실험의학·바이오테크놀로지·유전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27일 폭력 추방 캠페인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장 송은규 전남대병원장)는 오는 27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2013년 여성·아동폭력 피해 추방주간 캠페인 '폭력은 down 행복은 up'을 개최한다.

여성·아동폭력피해 추방주간(11월25일 ~ 12월1일)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여성·아동폭력 예방 퍼포먼스와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짐과 구호 제창,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가두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폭력은 범죄임을 재인식하게 해 광주시민들에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며, 또한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대의대 핵의학과 각종 수상 두각

한·중·일 핵의학회 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등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직무대행 정신) 핵의학과 교수·전공의들이 최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52차 대한핵의학회와 제6차 한·중·일 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젊은 연구자상, 우수 포스터상, 우수 구연상 등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다.

김동연 박사(사이클로트론실)는 '방사성 불소가 표지된 탄소사슬을 가진 포스포늄염을 이용한 심장영상에서 심근추출률의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기초핵의학 부문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 박사는 부

상으로 내년 미국핵의학회를 방문할 경비를 지원받게 됐다.

권성영 진료교수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FDG 분포형태와 자극후 타이로글로블린을 이용한 림프절 전이의 예측'이라는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강세령 전공의(4년차)는 '두경부암에서 PET-CT를 이용한 CCRT의 효과 조기예측'이라는 주제로, 박기성 전공의(1년차)는 '측두하악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구강 개폐 스펀의 비교'라는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보 광주지역본부, 곡성서 '장기요양 워크숍'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최근 곡성 강빛마을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 지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장기요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사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

의 장을 마련했다. 또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한국 웃음요가 연합회 회장) 및 호남대 장현 교수 특강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백 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배경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현장에서 습득한 우수 업무 노하우를 지사 간 공유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수기동 | 회사 사정상 급매함 제일 오피스텔 문의. 010-3605-5000

1층 상가. 25평

- 1층 코너
-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
- 시세/ 분양가 - 2억 5천만원
- 급매가 - 1억 7500만원

10,12,13층 OP. 29평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전망 좋음, 주차편리
- 시세/ 분양가 - 1억원
- 급매가 - 6500만원

9,13층 OP. 53평

- 사무실 전용
- 전망 좋음, 코너
- 시세/ 분양가 - 2억원
- 급매가 - 1억 3500만원